



아라힐링사이클&바이크



아라힐링카페 계류장

#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생기 넘치는 휴식처, 함안 입곡군립공원

가을과 겨울의 길목에서 현대인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가까운 유원지를 찾는다. 입곡군립공원은 계절이 따로 없는 함안의 사계절 명소다. 단풍은 기본 물과 하늘을 달리는 신나는 체험형 즐거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 신선들의 놀이기구 '아라힐링카페 무빙보트'

입곡군립공원의 주인공은 입곡저수지다.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만들어진 입곡저수지는 계곡물을 막아 만든 인공 저수지여서 심신 유곡의 풍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수심이 5~9m에 이르는 저수지는 산 그림자와 흰 구름 등실 뜬 하늘을 담고 고요하게 흔들린다.

고요함 속에 시선을 확 끄는 시설물이 있다. 컬러풀한 무빙보트다. 무빙보트는 체험 목표물 중의 하나다. 정식 명칭은 '아라힐링카페'. 화려한 조명에 싸여 시끌벅적 즐기는 도심 호수공원의 무빙보트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계류장 건너편 소나무 숲에는 백로 한 마리가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다. 무빙보트가 떠 있는 저수지와 소나무 숲 그림자 그윽한 저수지 저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그려 놓은 듯하다.

저수지에서는 고요하고 운치 있는 경관에 매료된다. 보트 위에서는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보트 몸체가 부드럽게 부딪히는 물결에 찰랑찰랑 맑은 소리를 낸다.

가볍게 부는 바람이 더없이 상쾌하다. 1회 승선 시간 30분이 수면 위에서 유유히 지나간다. 무빙보트의 이름이 왜 '아라힐링카페'인지 단번에 수궁할 수 있다. 신선놀음이 따로 없는 뱃놀이이다.

### 하늘을 나는 아라힐링사이클 '짜릿한 스릴의 극치'

입곡군립공원의 하늘자전거인 '아라힐링사이클'은 딱딱딱한 신상이다. 지난 6월 말에 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장과 휴장을 번갈아 하면서 정말 운 좋은 사람만이 탑승에 성공했다. SNS로 소문이 나면서 버리고 버리던 체험객들이 탑승 타워에 올랐다.

'아라힐링보트' 계류장을 내려다보는 탑승 타워는 14m 높이에 달한다. 아래에서 올려 볼 때는 만만했는데 위에서 보니 후들후들 떨린다. 안전모를 쓰고 안전장치를 체결한 후 자전거에 오르자 친절한 운영진이 잘 가라고 등을 떠밀어준다. 그 순간 와락 물 위로 떨어지는 듯한 스릴감이 아찔하다.

하늘자전거 탑승 시간은 약 10분. 4개 라인이 운영 중이어서 동행과 동시 탑승도 가능하다. 수면에 비치는 자전거를 이룬 때 아니면 언제 타볼 수 있을까? 연인과 함께라면 잊지 못할 추억 만들 수 있어 도전해볼 만하다.

아찔한 높이에 스릴 넘치는 '스카이바이크'는 총 120kg 이내라면 2명이 함께 탈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동반 체험객에게 인기를 끈다. 편안한 탑승감 덕분에 노약자도 도전해볼 수 있다.

무빙보트와 하늘자전거를 한 자리서 즐길 수 있는 곳은 입곡군립공원뿐이다. 코로나19로 생긴 스트레스를 기분 좋게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여행지로 입곡군립공원을 추천한다. ☘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 사업대상

- 만 19세~34세 도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예정인 자

#### 소득기준

- 대학(원)생 및 취업 준비생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사회 초년생 : 본인 연소득 3천3백만원 이하
- 기혼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용자 추천 (최대 9천만원 한도)
-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차 3% 지원

#### 청년 정보플랫폼 >>

- 신청하기

[www.gyeongnam.go.kr/youth](http://www.gyeongnam.go.kr/youth)

주거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신청

